

## 오만 정세 및 경제 동향

◆ 주오만왕국대한민국대사관

□ 정보출처 : Economist Intelligence Unit 보고서

□ 주요내용

### 1. 전반적인 평가

- (안정세 유지) 오만은 정치, 경제 면에서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최근 임금 상승 및 오만인 일자리 증가에 따라 2011년과 같은 소요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됨.
  - 최근 석유·가스 생산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비석유 분야에 힘입어 2014년도 1/4분기 경제성장률은 4.6%를 기록하였으며, 2014년 전체 경제성장률은 4.2%, 2015년은 3.9%가 될 것으로 EIU는 관측
- (주요 정세) 오만은 강력한 왕정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금년 74세를 맞는 국왕의 건강이 악화됨에 따라 중앙집권 체제가 악화되는 경우 정세 불안이 야기될 가능성이 존재함.
  - 사법, 입법, 행정 3권이 국왕에게 있고 국가의 종대사를 국왕이 직접 결정하는 정치 구조하에서 국왕 후계자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국왕 유고시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
  - 지난 7월 신병 치료차 독일로 출국한 국왕은 상금 귀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드 희생절에도 국왕이 돌아오지 못함에 따라 건강 악화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자 주재국 왕실은 이드 휴일 직전인 10.2 국왕이 예정된 치료를 순조롭게 받고 있다는 제3차 성명을 발표
  - 최근 일련의 재판으로 대기업 간부와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장기형을 복역받은 바, 2011년 “아랍의 봄” 사태 이후 절대 왕정에서 입헌 군주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존재
  - 국왕의 후계자로는 Assad bin Tariq al-Said 국왕 특별고문(후계자로 거론되고 있는 국왕 사촌 3명중 하나)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

려지고 있음.

- **(경제 동향)** 최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오만 정부는 금년 수준의 재정 확장 정책을 2015년에도 유지할 것을 천명한 바, 재정 적자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오만의 국부펀드 및 낮은 재정적자율(GDP 대비 2.2%) 등을 감안할 때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 EIU는 2015-19년간 재정적자가 GDP의 3.9%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

## 2. 대외정책 동향

- **(반IS 전선)** 오만은 여타 GCC 국가들과 반IS 전선 구축 지원에 동참 하였으나, 사우디, UAE, 카타르, 바레인, 요르단은 시리아 공습에 참여한 반면, 오만은 공습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재정 또는 인도적 지원 여부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오만 입장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주요언론 또한 반IS 연합에 대해 상당히 부정적 입장을 견지
- **(미·영국과의 관계)** 최근 영국 왕립연합국방안보연구소(Royal United Services Institute, RUSI)는 오만, 바레인, UAE 등에 군사기지 구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과거 포르투갈의 침탈 및 영국 보호령을 경험한 주재국의 특성상 군사기지 구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오만은 미국, 영국과의 긴밀한 군사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합동 군사훈련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
- 미국과는 1989년부터 군사 장비 및 공군 기지 사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2011년 아프가니스탄 작전시 오만 공군기지를 사용한 바 있음.

## 3. 경제 동향

- **(재정)** 오만 재정수입의 83%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가스 수입은 2014년 상반기 석유 생산 1% 증가, 가스 생산 6% 하락을 기록한 바, 금년 재정 수입은 다소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오만은 그간 국채를 발행하지 않아 왔으나 처음으로 2015년 초 이슬람 수쿱(sukuk)을 2억 OMR(약 \$5.19억) 규모로 발행하여 인프라 자금 등에 사용할 예정
- **(산업 다각화)** 오만은 비 석유 부문 확대 위해 제조업, 인프라 부문에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특히 철도, 항만, 공항, 관광업 등에 대한 투자를 확대중임.
  - 오만 중부 두쿰항 항만건설 제2단계 공사에 대한 발주가 조만간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되며, 오만 철도회사(ORC)는 철도 제1차 구간 입찰을 지난 8월 개시
- **(오마니제이션)** 오만내 청년 실업률은 약 30%, 전체 실업률은 약 15%로 관측되고 있으며 실업률 감소를 위해 오만 정부는 오마니제이션을 강력 추진하고 있으나, 이와는 별도로 내년에도 외국인 노동자는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 2014년 상반기 외국인 노동자는 전년 동기대비 6% 증가
  - 오만 정부는 제조업, 석유·가스 산업에 대한 외국계 기업 진출을 지속 장려